

研究論文

#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對북한 지원과 철수

박 영 실\*

I. 서론	V. 중국인민지원군 8년 주둔의 성과와 영향
II. 중국의 참전준비와 항미원조 운동	VI. 결론
III.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대북한 지원	<참고문헌>
IV.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	<국문요약>

## I. 서론

‘抗美援朝 保家卫国’의 가치를 내걸고, 중국인민지원군<sup>1)</sup>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25일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북한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에 대해서 “조중 양국 간에 역사적으로 맺어진 우호 친선의 도리상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자기 조국의 방위를 튼튼히 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특히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있어서만 거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 후 인류 사회에 새로이 형성된 고상한 국제주의의 명백한 표현으로 된다”<sup>2)</sup>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는 양국 간의 협조 관계를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한국정치사 전공(athena0901@hanmail.net).

1)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용어는 중국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제로 중국인민지원군은 정규 군이었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군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나 본 논문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김일성, 「우리의 정의의 공동 투쟁은 승리한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 참전 2주년에 제하여」, 『근로자』, 1952년 10호, 10쪽, 최중학, 「중국 인민의 항미 원조 운동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상한

1930년대 초부터 보고 있으며,<sup>3)</sup> 국공내전 동안 북한의 지원은 당시 위기에 처해 있던 중국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밀접했던 양국 간의 관계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에 더욱 공고해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한국전쟁 시기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대해 한국전쟁 당시에 위기에 처해있던 북한을 도왔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전 이후의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자료의 부재 때문이다.

중국에서 간행된 학술 서적도 대부분이 한국전쟁 정전 시점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중국에서 간행된 『抗美援朝戰爭史 1, 2, 3』<sup>5)</sup>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부터 철군까지를 다루고 있는 연구서이나, 철군에 관한 부분은 3권에 소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주로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에 남아 있던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그들이 정전 이후 전후복구 건설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잔류를 통해서 북한의 안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를 한 학자는 이종석과 김용현이다. 이종석은 위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강조하고 있으며,<sup>6)</sup> 김용현은 군사 안보적 지원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의 논문 역시 중국인민지원군의 잔류가 군사안보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의 축적재원, 나아가

표현), 『근로자』, 1953년 10호

- 3) 장덕순,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실현의 력사적 지위」, 『력사과학』, 주체 94(2005)년 루계 제1호, 95쪽.
- 4) 이종석은 국공내전이 냉전시대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이른바 ‘혈맹관계’를 형성시킨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한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중심, 2001), 120~121쪽. 1945년 이후 김일성은 연변, 목단강 지구에 조선인민혁명군을 파견했다 이들은 무장대오와 조선인부대를 조직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1948년 말에 중국동북해방작전을 승리로 이끈다. 김창호,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 『력사과학』, 1994년 제호(루계 제150호), 19쪽
- 5) 『抗美援朝戰爭史 1, 2, 3』은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가 한국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여 편찬한 것인데, 이것을 군사편찬연구소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2, 3』으로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 6) 이종석, 앞의 책

경제적 지원의 효과로 환원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두 연구의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동만은 농업 집단화가 완료된 1958년 10월까지 북한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주둔했던 가장 큰 이유를 전후 경제 복구건설을 위해 군사비와 병력 수준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평가했다.<sup>8)</sup> 와다하루키(和田春樹)는 1958년에 북한의 국가 사회주의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한편으로는 소련과의 연안파에 대한 숙청이 1958년 3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961년까지 진행되었다고 했다.<sup>9)</sup> 따라서 1958년의 시점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은 북한의 국가체제가 완성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파와 감산파가 등장하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첫째로 중국인민지원군이 과연 북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정전당시에는 120만 명이 주둔했었고 점차적으로 철수하여 1958년 최종철수 당시에는 25만 명이었다. 두 번째로, 왜 1958년의 시점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당시 북한과 중국 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주둔 8년의 성과와 영향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료의 분석을 통한 실증적 검증이 주요 방법인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사용해 중국인민지원군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북한의 《로동신문》과 북한의 공식 문헌이다. 그러나 사료의 접근성 면에서 《인민일보》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로 중국에서 간행된 중국인민지원군 관련 서적을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II. 중국의 참전준비와 항미원조 운동<sup>10)</sup>

한국전쟁이 개시되고 미군이 참전하기 전까지 중국은 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

7)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2001), 77~78 쪽

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선인, 2005), 598 쪽

9) 와다하루키(저)/서동만·남기정(역), 『북조선』(돌베개, 2002), 120쪽.

10) 본 장은 한국전쟁 개전초기 중국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참전하기 전에 중국 국내의 반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었다. 그것은 당시의 군사배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은 전체 57개 군 부대 중 동북지역에는 단지 제42군과 원래 4야전군의 3개 포병사 그리고 5개의 독립사, 1개의 공안사가 지방경비임무를 맡고 있었고, 부대원은 22만 8천명이었다. 당시 동북의 유일한 야전부대인 제42군은 원래 제4야전군 중 가장 늦게 창설된 부대였다. 따라서 동북지역은 병력배치면에서 본다면 가장 주둔군이 적은 지역이었다.<sup>11)</sup>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쟁 대비를 했다. 하나는 동북변방군(东北边防军)을 구성해서 직접적인 군사대비태세를 취한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국내에서 항미원조 운동을 벌인 것이다.

7월 7일 오후, 마오쩌둥(毛泽东)의 지시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저우언라이(周恩来)는 국방 보위 문제에 관한 제1차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즉시 중원(中原)지역의 국방기동부대 제13병단 아래 제38, 제39, 제40군을 북상 조종변경지역에 집결해 동북변방군을 조성하고, 이 군으로 하여금 동북변방을 보위하고 필요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책임”을 갖게 하였다. 또한 7월 13일 군사위원회는 ‘동북변방보위에 관한 결정(关于保卫东北边防的决意)’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7월 하순 제38, 제39, 제40군이 선후하여 압록강변에 도착하였고, 이미 동북에서 경작을 하던 제42군과 포병 제1, 제2, 제8사단 역시 명령을 받아 랴오둥(辽东)반도와 통화(通化)일대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위의 3개군과 함께 동북변방군으로 편입되었고, 당시 총병력은 25만 여명이었다.<sup>12)</sup>

동북변방군의 조직은 중국 공산당 중앙이 장기적인 전략적 판단에서 결정한 주도면밀한 대비였다. 이것으로 동북 국경지역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국이 능동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당시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항미원조’ 전쟁수행의 기초가 되었다. 평덕화이(彭德怀)<sup>13)</sup>는

11) 徐焰, 『毛泽东与抗美援朝战争』(北京: 解放军出版社, 2003), 50~51쪽.

12) 徐焰, 위의 책, 56~57쪽.

13) 1898년 후난(湖南)성 출생. 토지혁명전쟁시기 홍군 5군 군단장, 홍군 3군 군단장 등, 항일전쟁시기 팔로군 부사령원, 제18군 부사령원 등, 항미원조 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겸 정치위원, 중조연합사령원 겸 정치위원, 중공지원군 당위원회 서기, 1954년 9월 국방위원회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겸 국방부장, 1956년 중국 공산당 제8기 정치국 위원으로 중국군의 현대화 건설을

‘항미원조’ 전쟁 승리의 경험을 총괄하면서 “항미원조 전쟁이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 중앙과 마오쩌둥의 영명한 정책 결정 및 굳은 의지 그리고 정확한 지도 때문이었다. 미 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우리는 바로 5개 군을 압록강 북부로 이동시켜 적이 삼팔선을 넘어 우리 영역에 가까이 접근하길 기다렸다가 적의 의표를 찌르면서 통렬한 공격을 가하여 첫 번째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당시 ‘조선인민군’은 패전 국면을 만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사전에 하지 못했다면 당시의 불리하고 심각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14)</sup>라고 하였다.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중국은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강화와 미국의 즉각적 개입은 중국이 참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적 요인이었고 여기에서 중국 자체의 판단, 북한의 적극적 간청과 소련의 권고가 결합해 중국은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sup>15)</sup> 만약 당시 미군이 38선에서 북진을 멈추었다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군의 진격은 중국의 대북한 원조로 이어져 한국전쟁은 미·중 대결의 국제전으로 전화하였다.<sup>16)</sup>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은 ‘지원군(志願軍)’의 명의로 참전했는데 이것은 전쟁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sup>17)</sup> 참전하는 중국군의 명칭이 검토되고 있던 가운데 처음에는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지원군(支援軍)’의 명의로 출병할 것을 상의했으나 황옌페이(黃炎培)가 ‘지원군(志願軍)’의 명칭을 건의하여 이것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sup>18)</sup>

이름, 1974년 11월 29일 베이징에서 사망. 陈忠友(主编), 『中国人民志願軍人物志』(南京: 江苏人民出版社, 1997), 1쪽.

1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1』(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00-101쪽

15) 이완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정」, 박두복(편저), 『한국전쟁과 중국』(백산서당 2001), 246쪽

16) 이상호, 「한국전쟁기 38선 북진과 냉전의 고착화」,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4호(2005), 62쪽.

17) 姚旭,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국인민지원군이 출국하여 참전한 30주년을 기념하며」, 『중소연구』, 8권 4호(1984), 229쪽,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앞의 책(2002), 829-830쪽.

한편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불리었다. 1951년 4월 11일 人民日報에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谁是最可爱的人)’란 사실이 실렸고, 이후 이 명칭은 지원군의 별칭이 되었다.<sup>19)</sup>

중국 국내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파병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1월 7일 지원군이 정식으로 압록강을 건너자 18일 후, 신화사가 조선신민주 방송국 광고의 형식을 인용하여 처음으로 “중국인민지원부대”의 참전소식을 보도한 것이다.<sup>20)</sup> 그렇다면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중국정부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자, 먼저 국내에서 전쟁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항미원조 운동을 벌였다. 마오쩌둥은 전국적으로 사상동원을 진행하기 위하여 7월 10일 국내에 ‘미국의 타이완과 조선 침략에 대한 중국인민 반대 운동 위원회(中国人民反对美国侵略台湾 朝鲜委员会)’를 조직했다.<sup>21)</sup> 그리고 7월 14일 ‘미국의 타이완과 조선 침략에 대한 중국인민 반대 운동 위원회’는 ‘전국각지에서 미국의 타이완과 조선에 대한 침략 반대 운동 주간’을 실시했다.<sup>22)</sup>

1950년 10월에 들어서면서 참전 예정인 각 부대에서는 ‘항미원조 보가위국을 위한 지원입조에 관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당시 마오쩌둥과 주더(朱德) 앞으로 신청서를 써서 지원군 가입을 희망한 군인이 제38군의 338연대만 해도 3천 명이 되었다.<sup>23)</sup>

또한 10월 26일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항미원조 교육과 애국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각종 방식과 행동으로 항미원조 전쟁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시사선전 진행에 관한 지시(关于在全国进行时事宣传的指示)’를 발표했다. 이 지시에는 “전체 인민이 당면 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승리의 신념을 확립하며,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소멸하기 위하여, 각지에 현재 당

18) 胡海波, 『志愿军战事珍闻 全记录』(北京: 军事科学出版社, 2005), 144~145쪽; 다른 책에서는 中國民主建國會 소속의 정부 위원인 黃炎培가 義勇軍이란 명칭을 제안하여 마오쩌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다. 朱建榮(著)/서각수(역),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역사넷 2005), 156~157쪽

19) 旷晨 潘良 编著, 『我们的五十年代』(北京: 中国友谊出版公司, 2005), 22쪽.

20) 徐焰, 앞의 책, 153쪽.

21) 위의 책, 59쪽.

22) 范焕清(主编), 『支援抗美援朝纪实 1』(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00), 3쪽.

23) 朱建榮(著)/서각수(역), 앞의 책, 203쪽.

면 사건의 선전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같은 날 ‘중국 세계평화 보위대회위원회(中国保卫世界和平大会委员会)’와 ‘미국의 타이완과 조선침략에 대한 중국인민 반대운동 위원회’가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인민 세계평화 보위 및 미국 침략 반대위원회(中国人民保卫世界和平反对美国侵略委员会)’를 조직했다. 이 조직이 1951년 3월 중순부터 중국인민 항미원조 총회(中国人民抗美援朝总会)가 된다.<sup>24)</sup>

그 외 동북, 화북, 화동, 중남, 서남, 서북 6대 행정구와 내몽고 자치구는 잇따라 ‘항미원조총분회(抗美援朝总分会)’를 설립하고, 각 성과 시는 항미원조 분회를 설치하여 ‘항미원조’ 운동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 공장, 광산, 거리, 농촌, 중대, 학교 등 각 기관에서는 벽보, 칠판, 보고회, 좌담회 등의 여러 형식을 빌려 비교적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선전교육 활동을 벌였으며, 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각 인민단체와 민주당과 그리고 종교계도 집회를 열거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sup>25)</sup>

또한 1950년 12월 1일, 중앙 군사위원회와 정무원은 “청년 학생 노동자들도 군사간부학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참가신청자는 58만 명으로 중국 당국은 전국에서 대량으로 지식, 문화를 가진 청년간부를 모집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국에서 지원군에 입대하려는 신청자는 2,000여만명(적령기의 남성 청년이 반 이상)이었으나, 그 중 입대자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sup>26)</sup> 이러한 모집 공고는 1951년 6월 24일에도 발표되었으며, 전쟁 기간 동안 매년 2회에 20여만 명의 청년을 징집했다.<sup>27)</sup>

《로동신문》에도 중국의 군사간부학교 입학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중국에서 학생 청년 등 15만 명이 각종 군사간부학교 입학을 청원하였다. 상해에서만도 2만 명의 학생과 4천 명의 청년이 지원하였다. 지난 18일에 광둥에서는 10만 명이 군사간부학교 입학생을 환송했다”고 적고 있다.<sup>28)</sup>

1951년 1월 12일과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구제품 위문품을 모아 중국 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위문할 것에 관한 지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인

24) 范焕清(主编), 앞의 책, 4쪽.

2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앞의 책(2002), 286-287쪽.

26) 徐焰, 앞의 책, 334쪽.

27) 范焕清(主编), 앞의 책, 6~7쪽.

28) 《로동신문》 1951년 1월 26일자.

민 항미원조총회'는 1월 14일과 22일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위문하고 조선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발기할 것에 대한 통지(关于在全国发起慰劳中国人民志愿军和朝鲜人民军并救济朝鲜难民的通知)'와 '위문단을 조직할 것에 대한 통지(关于组织慰问团的通知)'를 발표하였다.<sup>29)</sup> 그 결정으로 중국인민 항미원조 총회는 1951년 4월, 1952년 9월 그리고 1953년 10월 등 3차례에 걸쳐서 위문단을 북한에 파견했다.

1951년 6월 1일 '중국인민 항미원조 총회'는 '애국공약을 진행하고, 비행기 대포를 기부하며 열사의 유족과 군인가족을 우대할 것에 대한 호소'를 발표했다. 이 내용은 "첫째, 전국적으로 애국공약운동을 전개한다. 전국의 각 공장, 기업, 기관, 학교, 도시, 농촌에서 모든 인민은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항미원조 운동을 그 중심에 둔다. 또한 구체적인 애국공약을 정하고 (기관, 직장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실천공약을 선별한다. 둘째, 비행기, 대포 헌납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군인 위문활동을 하며, 열사유족, 군인가족 상이군인을 돌본다. 농촌에서는 이들 가족의 파종작업을 돕고, 도시에서는 이들 가족의 취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였다.<sup>30)</sup>

이처럼 중국의 참전준비는 군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항미원조전쟁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할 지원자들을 모집하며, 한편으로는 이들 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 III.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대북한 지원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정전회담은 갑작스러운 스탈린의 죽음으로 마무리 되었다. 정전당시 중국은 전쟁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쟁이 끝난 것을 아쉬워했다.<sup>31)</sup>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정전협정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항미원조 전

29) 范焕清(主编), 앞의 책, 7쪽.

30) 旷晨 潘良(编著), 앞의 책 23-24 쪽

31) 杨奎松, 「中共中央对朝鲜停战问题的态度变化」,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한국전쟁중 중국의 참전 전략과 포로문제』(2001. 10. 25.), 163쪽.



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평가했다.

1953년 9월 12일, 마오쩌둥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24차 회의상에서 항미원조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항미원조 전쟁에서) 조선인민과 함께 38선을 수복하고 지킨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38선을 수복하지 못했다면 전선은 아직도 야루지양(鴨綠江)과 투먼지양(圖們江), 선양(沈陽), 안산(鞍山), 푸순(抚顺)에 머물러 있어 이 지방의 인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항미원조 전쟁을) 통해 군사경험을 얻었다. 우리 중국인민지원군의 육군, 공군, 해군, 보병, 포병, 공병, 탱크병, 철도병, 방공병, 통신병, 위생부대, 후방부대 등은 미국 침략군대를 적으로 실제 작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항미원조 전쟁은) 전국인민의 정치 자각을 향상시켰다. 네 번째, (항미원조 전쟁은) 제국주의의 새로운 중국 침략전쟁을 연기하고, 제3차 대전을 연기했다”<sup>32)</sup>

1953년 7월 28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평더화이에게 조선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을 발표하였고, 10월 27일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에 대한 공화국 훈장 수여식을 거행했다.<sup>33)</sup>

1953년 7월 28일 북한정부는 평양시에서 한반도 정전의 실현을 경축하는 군중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김일성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민주기지를 강화하고 전후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키자!”고 호소했다. 또한 8월 5일,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김일성은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통일독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 체도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 대중의 애국적 력량을 동원하여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 조국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은 정전의 평화적 기간을 최대한 리용하여 민주기지와 강화를 위한 전후 복구 건설에 모든 힘을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sup>34)</sup>라고 발언했다. 정전직후 북한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전후 복구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공산진

32) 逢先知 李捷 著, 『毛泽东与抗美援朝』(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0), 130~131 쪽

33) 조선중앙통신사(편), 『해방후 10년일지』(선인문화사, 1997), 158 쪽

34)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1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400 쪽

영 국가들에게 원조를 요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김일성은 1953년 11월 10일 평양을 출발하여 12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복구건설 과정에서 중국이 원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35)</sup> 그리하여 1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경제 및 문화 합작에 관한 협정’을 베이징에서 조인했다.<sup>36)</sup>

이 협정에서 중국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말까지의 기간에 북한에 원조한 모든 물자와 비용을 무상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하여 1954년도부터 1957년도까지 4년간에 인민폐로 8 조위안(이것은 구화폐, 새로운 인민폐로 환산하면 8억위안)의 원조를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에서 1954년도에는 3조위안을, 잔여분 5조위안은 3년 간에 걸쳐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게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기술적 원조의 구체적 방법은 북한의 기술자 및 기능자들을 중국에 파견하여 해당 생산 부문들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중국의 기술자, 기능자들이 북한에 와서 생산 부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양국 정부 사이에는 무역, 철도 기술자, 기능자 양성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별적 협정들이 체결되었다.<sup>37)</sup>

1954년 3월 29일, 지원군 사령부와 정치부는 ‘북한인민의 재건작업 지원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서 각 부대는 북한 주민을 도와 수리건설을 진행하고 계절성 농업에 참가하며 가옥과 공공건물의 복구를 도와주고, 중대는 70%의 인원을, 기관은 20~40%의 인원을 동원하라고 규정했다. 그 후 지원군 당위원회는 북한 주민을 도와 진행하는 회복과 재건 작업을 연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지원군 각 부대의 중요한 임무로 삼아 완성하도록 했다.<sup>38)</sup>

35) 조선중앙통신사(편), 앞의 책, 167쪽, 이 시기는 정전 이후 김일성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며 이후 1954년 9월 28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주년 기념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시 북경을 방문한다.

36) 《로동신문》 1953년 11월 25일자.

37) 《로동신문》 1958년 2월 14일자; 김일성, 「쏘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사업 경과 보고(1953년 12월 2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 6차 회의에서)」, 『근모자』, 1954년 1호 11~12 쪽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774쪽.

38) 위의 책(2005), 777 쪽

1954년 6월 25일 평양시 보고 대회에서 양용(楊勇<sup>39</sup>)은 “정전 후 중국인민지원군 전체 지휘원, 전투원들은 조국 인민의 촉탁을 받들어 모두가 한결같이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왔으며 조선 인민들이 지나간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속히 완치하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결속적으로 방조하여 왔습니다. 우리 전사들은 영웅의 도시 평양시를 비롯하여 기타 지구들의 재건 사업에 직접 참가하게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sup>40</sup>라고 했다.

한국전쟁 당시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은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에 주둔하면서 재건사업을 도왔다. 그들은 전투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자급자족했으며 전방지대에서는 북한 인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sup>41</sup> 또한 중국인들은 각지에서 북한으로 양곡을 보냈으며,<sup>42</sup> 중국정부는 기술자들을 직접 북한으로 파견하여 복구사업에 참여하게 하였다.<sup>43</sup>

중국인민지원군이 철군한 이후 사령원 양용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비위원회와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8년 동안, 불완전한 통계지만, 우리는 조선인민과 함께 공공장소 881 곳을 부설했고, 민가 4만 5,412칸, 4,363곳의 다리를 복구하거나 신축했고, 4,096여개의 제방 42만 9,220미터를 축조했으며, 크고 작은 수로 2,295 개가 1,218 킬로미터에 달했다. 또한 8억 5천 219만 7,473평을 경작했고, 나무 3,608만 6,549그루를 심고, 63,853톤의 식량물자를 운송했다. 특히 전시에 중국인민지원군은 입고 먹는 것을

39) 1913년 9월 29일 생, 후난(湖南)성 출생, 1927년 4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가입, 1930년 중국 공농홍군 참가, 중국공산당 당원 가입, 토지혁명시기 홍군 연대·사단 정치위원 등,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 꾸이저우(貴州)군사지역 사령원 등, 1953년 항미원조 전쟁 참가, 중국인민지원군 제20병단 사령원, 지원군 부사령원, 사령원 등, 1958년 중국으로 귀국후, 베이징 군사구역 사령원, 1972년 선양(沈陽)군사지역 부사령원 등, 1983년 1월 6일 사망. 陈忠友(主編), 앞의 책 98 쪽

40) 《로동신문》 1954년 6월 25일자.

41) 박길용·김국후, 『김일성 외교비사』(중앙일보사, 1994), 43쪽.

42) 《로동신문》 1954년 6월 17일자. 형제적 중국으로부터 금년 1월부터 매일같이 수십차량씩 양곡이 입하되고 있다고 기사가 실렸다.

43) 《로동신문》 1954년 5월 24일자. 중국의 기술자들은 평양복구사업에 참여하여, 만경대 학원, 김책 공대, 대동교 복구 등을 마쳤다

절약하여, 양식 1만 630여톤과, 옷과 일상용품 58만 9,149개로 흉년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었다”<sup>44)</sup>라고 하였다. 북한의 재건은 중국인민지원군의 노력과 또 한편으로는 중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원조물자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측은 이미 1956년도에 북한 경제가 이미 전쟁 전인 194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평가했다.<sup>45)</sup>

#### IV.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

1953년 한반도에서 정전이 실현되었을 때 북한에 있던 중국인민지원군은 제1, 제12, 제15, 제16, 제21, 제23, 제24, 제46, 제47, 제50, 제54, 제60, 제63, 제64, 제65, 제67, 제68군단의 17개 군단과 제33사단 그리고 별도의 포병 고사포병 장갑병, 공병, 철도병, 후방병참부대, 후방경위부대, 지원군 총사령부 및 각 병단 기관과 직속 부대 등 120만 명이였다<sup>46)</sup>

그 중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우선적으로 1954년에서 1955년 사이에 3차에 걸쳐 공개적으로 한반도에서 19개 사단을 철수시켰다. 195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7개 사단 총 8만 7,894명이<sup>47)</sup>, 1955년 3월과 4월 사이에 총 6개 사단 5만 2,192명이,<sup>48)</sup> 1955년 10월에는 6개 사단, 총 6만 3,257명이 철수했다.<sup>49)</sup>

1955년까지 공개적인 철군을 마치고, 1956~57년 사이에는 공개적인 철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측에서는 처음에는 1956년 내에 철군을 완성하려고 준비했으나, 1956년 폴란드, 헝가리 사건 후,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분규를 일으킬 것을 걱정해, 지원군 철군이 잠시 정지되었다고 했다.<sup>50)</sup>

44) 杨勇, “中国人民志愿军八年来抗美援朝工作报告(一九五八年十月三十日).”

4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앞의 책(2005), 787쪽

46) 위의 책, 788쪽

47) 《로동신문》 1954년 10월 7일자.

48) 조선중앙통신사(편), 앞의 책, 205쪽. 그러나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권에는 이 시기가 9월 16일 까지 철수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胡光正 马善营 编, 『中国人民志愿军序列』(北京: 解放军出版社, 1987)에서도 4월에 철수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9) 《로동신문》 1955년 10월 27일자.

50) 徐焰, 앞의 책, 328쪽.

하지만 1956년의 시점은 북한 국내적으로 여러 사건이 일어난 시기였다.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김일성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사건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알려지자 소련과 중국은 각각 부수상 미코얀과 국방부장 평더화이를 급히 평양으로 파견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8월 전원회의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하였다. 당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원조를 받고 있던 김일성으로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51)</sup> 이러한 혼란스러운 북한 내부 정치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중국인민지원군의 전체 철수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56년에 조선인민군의 병력을 축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 평화적 통일의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56년 8월 31일까지 8만명을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sup>52)</sup> 그러나 이것은 1956년의 시점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전체가 철수할 수 없다는 계산 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58년의 시점은 어떠한가. 1957년 후반기에도 미군이 남한에서 병력을 철수한다거나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1958년 당시 시점에서도 철수는 무리한 것이었다. 북한과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미 북한이 경제회복에 성공을 했고, 북한 정권이 안정기에 돌입했으며, 그와 더불어 한반도에 평화적인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시에 미군도 남한에서 철수하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과의 어떠한 협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국은 자체적으로 북한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시켰다.

1958년의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에 관해서는 1957년 말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1957년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소련을 방문해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식에 참가했다. 모스크바 체류 기간 동안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한반도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철수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 김일성은 소련에서 귀국한 다음 1957년 12월 16일과 25일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써서 지원군의 한반도 철수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 정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주장하고 이에 중국 정부가 적극 호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

51)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0), 79쪽

52) 《로동신문》 1956년 6월 1일자.

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유엔에 서한을 보내고 소련도 유엔에 제안을 해서 유엔이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었다. 12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 위원회와 서기처는 이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철수 방안’을 수립했다. 그리고 1958년 1월 24일 마오쩌둥은 중국인민지원군의 한반도 철수에 관한 전문을 김일성에게 보냈다.<sup>53)</sup>

공식적으로 철수와 관련된 성명은 1958년 2월 5일 북한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문제에 관해 발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성명에는 일체의 외국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성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sup>54)</sup>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일체 외국군대의 철거 문제와 조선의 평화적 통일 문제는 이미 성숙되었으며 지체 없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성명한다.

1.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군과 또한 중국인민지원군을 포함한 기타 일체 외국 군대가 남북 조선으로부터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에 자기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은 조선으로부터 자기의 군대를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해당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어떠한 구실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을 하등의 근거도 없다.
2. 남북 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 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전 조선 자유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중립국 기구의 감시하에 실시될 수 있다. 선거에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과 정치 사회계의 인사들의 활동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남북 조선의 어디서든지 법적으로 허여되어야 한다. 현재 남조선에서 감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당들의 활동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엄금되어야 한다.
3.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전 조선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동등한 기초 위에서 남북간의 협상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남북간

5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앞의 책(2005), 790-791쪽.

54) 《로동신문》 1958년 2월 6일자.

에는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평화적 주민들의 자유 래왕이 허여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경제 교류는 우선 남북이 서로 일정한 지점을 선정하고 그를 통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어를 비롯한 민족문화의 통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의 학자, 문화 예술인 및 체육인들의 접촉과 그들의 공동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4.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8 만여의 무력을 축소한바 있거니와 금후 조속한 기간 내에 남북 조선의 군대는 각각 최소한도로 축소되어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남북 군비 축소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 정당한 제의에 지체없이 호응함으로써 남북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확장된 <국군>의 유지를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지拂하는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반드시 경감시켜야 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상술한 대책들의 실현이 조선의 평화적 통일과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이 본 성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릴 것을 기대한다.

2월 7일 중국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북한정부의 이러한 제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로, 저우언라이 총리를 선두로 한 중국 대표단이 1958년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 정부 대표단은 평양 함흥 흥남 원산 등의 도시를 방문했고, 공장, 농업학자사와 문화교육기관 등을 참관했으며, 방문기간 중 북한 정부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중 양측은 모든 외국군대가 한반도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일치하고 한반도문제의 평화해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한 정부의 1958년 2월 5일 성명 중 제출한 여러 가지 건의가 북한의 평화통일을 희망하는 민족 소망을 반영할 뿐 아니라, 현재의 국제정세하가 시기적으로 현실적이라는데 견해를 일치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 왔으며, 1958년 2월 7일자 중국성명은 북한정부의 여러 가지 건의를 지지하며, 이제 북한정부와 협상 후 중국인민지원군이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sup>55)</sup>

55) 「中朝两国政府關於中国人民志愿军撤出朝鲜的联合声明(1958年 2月 19日)」, 『为了朝鲜的和平统一—(中朝两国政府關於中国人民志愿军撤出朝鲜的联合声明及有关文件)』(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58),

1958년 2월 20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부는 “조선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전체는 1958년 말 이전에 철수한다. 첫번째 부대가 4월 30일전에 철수 완료한다는 중국 정부의 건의, 결정에 북한정부는 완전히 찬성했다. 조중 양국 정부는 1958년 2월 19일의 연합성명으로 위와 같은 결정을 선포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유엔군에 참가했던 다른 국가들이, 조선문제의 평화해결과 동아시아 긴장형세의 완화를 위해서 자기의 군대를 남한으로부터 전부 철수하는 것을 미루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만약 미제국주의와 그의 추종자가 조선정전협정의 존엄을 파괴하고 다시 한반도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인민과 북한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중국인민은 우수한 자기의 아들딸을 조금도 망설임없이 파병할 것이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 조선인민군과 함께 적의 침범을 분쇄하고 공동 투쟁할 것이다”<sup>56)</sup>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소련정부도 “소련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 인민공화국 양국의 조치를 완전히 지지하며, 남한에 주둔한 미국과 기타 국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의 군대를 남한으로부터 철수하고, 동아시아의 정세를 건전하게 하며, 한반도지역에 평화의 공고화 및 한반도의 민족통일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sup>57)</sup>고 밝혔다.

평양에서도 공개적으로, 1958년 들어 2월 20일자 성명으로 “중국인민지원군 전체 장병들은 조중 양국 정부의 제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1958년 말까지 조선으로부터 단계별로 전부 철수하며, 제1단계 철수를 4월 30일 전으로 완료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sup>58)</sup>

철군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기 위해 지원군 당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저우언라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철군 작업을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전 군에 절대 태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처음과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급 부대

---

5~12 쪽

56) 「中国人民志愿军总部關於1958年全部撤出朝鮮的声明(1958年2月20日)」, 『为了朝鮮的和平統一(中朝两国政府關於中国人民志愿军撤出朝鮮的联合声明及有矣文件)』(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58), 13~15 쪽

57) 「苏联政府關於支持中朝两国和平倡議的声明(1958年2月20日)」, 『为了朝鮮的和平統一(中朝两国政府關於中国人民志愿军撤出朝鮮的联合声明及有矣文件)』(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58), 18 쪽.

58) 《로동신문》 1958년 2월 21일자.



에 ‘交好, 走好, 到好’를 요구했다. ‘交好’는 무기, 장비와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북한인민군에 넘겨주고, ‘走好’는 원만하고 완전하게 철군하는 것이며, ‘到好’는 조국으로 돌아간 다음 공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조국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했다.<sup>59)</sup>

이러한 철군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국 인민지원군 6개 사단 8만 명이 철수하고,<sup>60)</sup> 두 번째로 6개 사단과 특별병중 부대를 포함한 10만 명은 7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북한으로부터 철수,<sup>61)</sup> 마지막으로 제3단계 철수부대인 지원군 사령부와 3개 사단 및 후방공급부대 7만 명은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중국으로 돌아갔다.<sup>62)</sup>

그리하여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 참전기념일 8주년 당일, 지원군 총사령부의 마지막 일부가 평양으로부터 철수했고,<sup>63)</sup>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는 10월 27일 단둥에서<sup>64)</sup>, 10월 28일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가졌다.<sup>65)</sup>

중국인민지원군은 철수하면서, 그들의 물자를 북한에 양도하고 나왔다. “멀지 않아 조선으로부터 철수를 전부 완료하게 됨과 관련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는 비품, 건물시설, 물자, 기재들을 전무 무상으로 조선 인민군에게 양도한 것을 결정하였다. 인수인계사업은 1958년 10월 16일 성과적으로 수행되었다<sup>66)</sup>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와 함께 북·중 양국은 전쟁 기간 중 중국측에서 말

5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앞의 책(2005), 798 쪽

60) 《로동신문》 1958년 4월 26일자.

61) 《로동신문》 1958년 8월 15일자.

62) 《로동신문》 1958년 10월 28일자 “중국 인민 지원군 철거에 관한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부의 공보”; “Communique of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Completion of Withdrawal, October 26, 1958,” *Eight year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resistance to American aggression and aiding Korea*,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58, p. 3

63) 徐焰, 앞의 책, 328 쪽.

64) “Speech in Reply Given by General Yang Yung at the Antung Mass Rally to Welcome the Returned C.P.V., October 27, 1958,” *Eight year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resistance to American aggression and aiding Korea*, pp. 18-27.

65) “General Yang Yung’s Speech at the Peking Mass Rally to Welcome the Returned C.P.V., October 28, 1958,” *Eight year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resistance to American aggression and aiding Korea*, pp. 47-66.

66) 《로동신문》 1958년 10월 18일자.

아 양육하던 전쟁고아 2만 명을 귀국시키기 위한 협의도 진행시켰다. 북한측에서 대외문화 연락협회 위원장이던 허정숙이 이 협상의 책임을 맡아 조선인민 대표단과 함께 중국 내무부를 방문하여 고아들의 귀국에 관한 초보적 계획을 토의했다.<sup>67)</sup> 이들은 전쟁 고아들과 상봉했으며,<sup>68)</sup> 그들의 학원을 방문했다. 중국측은 이들 전쟁 고아들을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후 북한은 고아들을 위한 귀국 준비를 추진했다.<sup>69)</sup>

북한 국내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환송하기 위해서 10월을 조중 우호의 달로 정했으며, 10월 3일 평양에 조중친선협회가 창립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중친선협회 규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다음 29명으로 구성된 협회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여 하양천을 위원장으로 현필훈, 서철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다.<sup>70)</sup>

통계에 따르면 1958년 3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인민군에게 넘겨준 각종 물자는 총가치가 인민폐로 1억 5,700만 위안에 달했다.<sup>71)</sup> 또한 철군과정중 각 부대는 모두 인수인계 규정에 따라 병영, 병영도구, 대량의 물자와 병원설비를 북한에 무상으로 인계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을 환송하기 위해서 북한 내각은 김일성이 직접 철군하는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를 전송했고, 조중우호기념뺨지를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주었다. 그리고 각 방면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임무를 도와주었다. 북한의 기차운전사는 대량의 열차로 부대를 운송해주고, 각지의 북한인들은 자발적으로 다리를 놓고 길을 포장하여 군사 차량의 통행을 도와주었다.<sup>72)</sup>

정전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은 총 6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철수를 진행했다. 1954년에서 1955년 사이 20만 명과 1958년에 25만 명으로 대략 총 45만 명의 인원이 철수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공개로 철수를 감행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7) 《로동신문》 1958년 5월 8일자.

68) 《로동신문》 1958년 5월 14일자.

69) 《로동신문》 1958년 5월 16일자.

70) 「불멸의 친선」, 『인민조선』, 1958년 10월호, 14쪽.

7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앞의 책(2005), 802 쪽

72) 杨勇, “中国人民志愿军八年来抗美援朝工作报告(一九五八年十月三十日).”

중국인민지원군 철수현황<sup>73)</sup>

철수 시기	철수 병력 상황	철수 병력 인원
1953년 비공개 철수	8월-64군단 9월-63군단 포병 7사 10월-60군단, 65군단, 포병 2사, 포병 21사, 고사포 61사	대략 16개 사단
1954년 공개 철수	9월-10월 47군단(139, 140, 141사단), 67군단(199, 200, 201사단), 33사단	7개 사단 총 87,894명
1954년 비공개 철수	4월-12군단 5월-15군단 장갑병 제 1지휘소(4개 연대) 8월-포병(단동) 64사 12월-포병 22사, 포병(단동) 65사	대략 10개 사단
1955년 공개 철수	3월-4월 50군단(148, 149, 150사단), 68군단(202, 203, 204사단)	6개 사단 총 52,192명
1955년 비공개 철수	3월-공안 1사, 포병 3사, 9월-고사포(단동) 63사	대략 3개 사단
1955년 공개 철수	10월 24군단(70, 72, 74사단), 46군단(133, 136, 137사단)	6개 사단 총 63,257명
1957년 비공개 철수	2월-포병 1사 4사	대략 2개 사단
1958년 공개 철수	3월 15일-4월 25일 16군(32, 46, 47사단), 23군(67, 69, 73사단)	6개 사단 총 8만여명
1958년 공개 철수	7월 11일-8월 14일 21군(61, 62, 63사단), 54군(130, 134, 135사단) 및 특별병 중부대	6개 사단 및 특별 병중 부대 총 10만여명
1958년 공개 철수	9월 26일-10월 26일 1군단 (1, 2, 7사단), 및 지원군 사령부와 후방공급부대	3개 사단 및 지원 군 사령부와 후 방 공급부대 총 7만명
기타 비공개 철수	포병 33사, 공병지휘소 11개 여단, 공군연합사령부 8개 사 단, 공군 제2군(3사, 12사 및 제9사의 27여단), 포병(단동) 62사와 102사, 중조연합전방철도운수사령부 10개 사단	대략 23개 사단 및 12개 여단

표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철수한 인원은 45만 여명이다. 중국 측 자료에는 정전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이 대략 120만 명 정도가 남아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거의

73) 胡光正 马善营 编, 『中国人民志愿军序列』(北京: 解放军出版社, 1987)을 참고로 하여 작성함. 기타 비공개 철수는 정전 당시 북한에 남아 있던 중국인민지원군이나 정확한 철군 시점을 알 수 없는 부대들이다.

3분의 2 가량이 비공개적으로 철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전 당시 미국과 연합국 측의 주둔 인원은 총 34만 여명(미군 30만 여명, 유엔군 4만 여명)이었다.<sup>74)</sup> 그에 비해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인원수는 너무나 많았고, 표면적으로 지원군의 형식으로 참전한 군인들의 철수 성명을 중국정부에서 공식화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대해서 남한과 미국 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다. 《조선일보》는 북한 주둔 중국인민지원군이 25일 철군했으며, 북한에 얼마나 진주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지만 30만 내지 40만의 증공군이 진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sup>75)</sup> 특히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이후 10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제88차 본회의에 참석한 월슨 소장은 북한의 철수에 대해서 “전략적 철수에 불과하다”고 언명했으며, 북한이 요구한 유엔군 철군 제의를 거절했다.<sup>76)</sup>

## V. 중국인민지원군 8년 주둔의 성과와 영향

중국인민지원군은 8년 동안 4명의 사령원이 교체되었다. 우선 한국전쟁 참전시 기부터는 평더화이가, 그리고 1954년 9월 덩화(邓华)<sup>77)</sup>가 지원군 사령과 겸 정치위원을 맡았다. 그 후 1954년 11월에는 양더즈(杨得志)<sup>78)</sup>가 사령원에 취임하고, 1955년 4월 29일부터 양용이 담당하여 이후 철군작업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중국에서는 항미원조 전쟁 승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74)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下)』(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91), 490쪽.

75) 《조선일보》 1958년 10월 27일자.

76) 《조선일보》 1958년 10월 28일자.

77) 1910년 4월 후난(湖南)성 출생, 1927년 중국공산당 가입, 토지혁명전쟁 시기 중국 공농홍군 조직 간사, 연당대표, 조직과장 등을 역임, 항일전쟁시기 팔로군 정치위원 등, 제3 병단 사령원, 항미원조 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원 겸 정치위원 등, 1959년 쓰촨(四川)성 부성장, 1977년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부원장, 1980년 7월 3일 베이징에서 사망. 陈忠龙(主編), 앞의 책, 16쪽

78) 1911년 후난(湖南)성 출생, 1928년 2월 공농혁명군 제7사단에 참가, 10월에 중국공산당 가입, 토지혁명전쟁시기 중국 공농홍군 제1군단 소대장, 연대장 등, 항일전쟁시기 팔로군 제115사 제685 연대장 등, 1951년 항미원조 전쟁에 참가하여, 중국인민 지원군 병단사령원, 지원군 부사령원, 사령원 등, 1973년부터 우한(武汉), 쿤밍(昆明) 지역 사령원, 국방부 부부장, 해방군 총참모장 등, 1987년 중공 중앙 위원회 상임고문. 陈忠龙(主編), 앞의 책, 79쪽.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인 명망을 제고시켰으며 아시아와 국제 사회에서 신중국의 중요한 지위를 굳건하게 했다. 둘째, 미국의 불패신화를 깨뜨렸다 셋째 중국이 평화건설을 추진할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동시에 중국 인민들의 생산의 적극성을 극대화시켰다. 넷째, 중국인민지원군이 현대화 전쟁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했다. 다섯째, 중국인민들은 이 전쟁을 통해 위대한 항미원조 정신을 창조했다. 항미원조 정신은 아주 고귀한 민족정신이며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미덕을 보여주었고, 나중에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널리 칭송되고 있다.”<sup>79)</sup>

이중에서 특히 현대화전에 대한 경험은 이후 타이완과의 계속되는 전쟁에 도움이 되었다. 중국은 1952년 4월에 조선 참관단을 조직했다. 이것은 중국 국내에서 참전하지 않은 지휘관들에게 현대화 전쟁의 경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여기에는 야전부대와 특수병과 각군(지방군관구 불포함)의 군단장, 사단장이 참가하였다. 모택동은 “군단장, 사단장이 중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참가해야 하며, 4월 25일 전후로 출발하여 5월초 조선에 도착하여 실전을 참관해야 한다”<sup>80)</sup>고 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한 군인들은 이후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다. 1997년을 기준으로 중국 권력 구조상 군 최고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중국인민지원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sup>81)</sup> 결과적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지원군은 지원군의 형태보다는 정규군이였다. 그리고 현대화된 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쟁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김용현은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의 실제 배경은 중국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실질적으로 한국전쟁 정전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40 만 이상의 병력을 북한의 지원 없이 주둔시키면서 발생하는 장기간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1957년 11월 모스크바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식’ 경축행사에서 모택동이 “세계 제2위의 영국을 15년 안에 따라잡겠다”는 발언 이후 중국

7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앞의 책(2005), 840-845쪽

80) 徐焰, 앞의 책, 243쪽

81) 이종석, 앞의 책(2000), 282쪽

은 대약진으로 전국이 휩쓸려 들어가면서 상당 기간 지연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시점에서 양국간 완전철군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sup>82)</sup>

중국 내부의 변화는 확실히 중국인민지원군을 철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57년 4월 27일 ‘정풍운동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고, 6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반우파투쟁을 시작한다.<sup>83)</sup> 1957년부터 이미 중국내 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것은 지원군을 철수시키고, 내부적으로 결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철군을 희망했으며, 동시에 북한에서도 이것을 바라고 있었다. 전후 재건사업을 마친 북한은 이제 중국과 소련 양국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다변화된 협력체제를 희망했다.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생독립국 29 개국이 참가한 반동회의에서 “평화 5원칙”이 발표되고, 후르시초프가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 비하 발언과 서방진영과의 평화공존정책을 추진하자 소련은 중국과 분쟁이 야기되었고, 이에 북한은 중국·소련·동유럽 등 몇몇 공산국가에 국한했던 동맹외교에서 탈피해 다변외교로 전환했다.<sup>84)</sup>

1957년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대외정책분야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진영 나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sup>85)</sup> 그리하여 1950년대 중반이후의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남한과 미국 측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첫째, 자유세계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주려는 것이며, 둘째, 유엔군이 남한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이렇게 하여 남한이 약화된 틈을 타서 공산 측에 승리를 가져올 조건에 입각하여 분단된 반도를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서 철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북한과 만주사이

82) 김용현, 앞의 논문, 81~82쪽.

83) 旷晨 潘良 编著, 앞의 책, 99~100쪽.

84)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비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백산서당 2003), 132 쪽

85)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사회과학출판사, 1985), 205 쪽

에 있는 압록강하나 사이다. 그들은 순식간이면 되돌아 올 수 있지만 유엔군이 철수한다면 그것은 무려 수만리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사건이 생긴다면 미쳐 막으려 올 사이도 없는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sup>86)</sup>고 경계했다. 남한과 미국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언제라도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 VI. 결론

한국전쟁이 개전되었을 당시에 중국은 참전할 의사가 없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미국이 참전할 경우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아직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하자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맞서 싸우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북한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심사숙고하게 되었다. 결국 소련의 지원이 확실해지자 중국은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참전전략을 구체화했다. 개전과 함께 국경 지역 방위를 목적으로 편성된 동북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이다.

만약 당시에 중국이 동북변방군을 결성하지 않았더라면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북진해 들어오는 남한군과 유엔군을 북한이 막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국내적으로 항미원조 운동을 벌였다. 항미원조 운동은 중국인들에게 그들의 한국전쟁 참전을 이해시켰다. 물론 항미원조 운동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이후에는 항미원조 총회가 중국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북한에 위문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논문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정전 이후에 북한에서 수행한 역할에 주목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 잔류하면서 직접 북한을 지원했다. 정전 당시 북한에 잔류하던 중국인민지원군은 120만 명이었고, 1958년 철군시에는 25만 명이였다. 중국은 이들을 점차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철수시켰다.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잔류는

---

86) 《조선일보》 1958년 10월 28일자.

그들의 노동력을 직접 활용하게 해 주었고, 또한 북한의 군사비를 북한 국내의 재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무상 원조와 중국의 기술자들을 직접 북한으로 파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건사업을 도와주었다. 만약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협조와 중국의 경제 원조가 없었다면, 북한의 재건사업은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관해서 북한이나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의 재건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는 중국 국내 문제의 발생과 북한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정전 이후 5년 동안이나 북한에 너무 많은 인력과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그들의 군사력을 북한에 잔류시킬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 북한에서도 소련이나 중국 어느 한쪽 국가에 치우치는 외교형태보다는 자주적이고,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려 했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으로 일정 정도의 재건사업에 성공했고, 이제는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양국은 더 이상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주둔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이러한 양국의 속셈이 표출되어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대해서 남한과 미국은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남한과 미국은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력 철수보다는 그들이 전쟁이 개시되었을 때 다시 참전할 가능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 참고문헌

《로동신문》; 《조선일보》.

「불멸의 친선」, 『인민조선』 1958년 10월호, 13~14쪽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下)』, 서울: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91.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3.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 박사학위논문, 2001.
- 박길용·김국후, 『김일성 외교비사』.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와다하루키(지)/서동만·남기정(옮김), 『북조선』. 서울: 돌베개, 2002.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이상호, 「한국전쟁기 38선 북진과 냉전의 고착화」. 『정신문화연구』 제8 권 제 4 호 통권 101 호, 2005, 37~66쪽.
- 이완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정」. 박두복(편자),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195~248쪽.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1.
- 이종석, 『새로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조선중앙통신사(편), 『해방후 10년일지』, 서울 선인문화사 1997.
- 朱建榮(지음)/서각수(옮김),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울: 역사넷, 2005.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김일성, 「우리의 정의의 공동 투쟁은 승리한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 참전 2 주년에 제하여」 『근로자』 1952년 10호, 9~25쪽.
-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1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 김창호,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 『력사과학』 1994년 제2호(루게 제150호), 18~22 쪽
-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姚旭,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국인민지원군이 출국하여 참전한 30주년을 기념하며」. 『중소연구』 8 권 4 호, 1984, 213~235 쪽
- 장덕순,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실현의 역사적 지위」. 『력사과학』 주체 94(2005)년 루게 제 호 95~102쪽.
- 최종학, 「중국 인민의 항미 원조 운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상한 표현」. 『근로자』 1953년 10호, 62~74 쪽
- 『为了朝鲜的和平统一(中朝两国政府關於中国人民志愿军撤出朝鲜的联合声明及有关文件)』.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58.

范焕清(主编), 『支援抗美援朝纪实』1. 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00.

逢先知 李捷(著), 『毛泽东与抗美援朝』.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0.

徐焰, 『毛泽东与抗美援朝战争』. 北京: 解放军出版社, 2003.

胡光正 马善营(编), 『中国人民志愿军序列』. 北京: 解放军出版社, 1987.

胡海泼, 『志愿军战事珍闻 全记录』. 北京: 军事科学出版社, 2005.

杨奎松, 「中共中央对朝鲜停战问题的态度变化」. 韩·中 국제학술세미나 『한국전쟁중 중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2001. 10. 25.

旷晨 潘良 编著, 『我们的五十年代』. 北京: 中国友谊出版公司, 2005.

杨勇, “中国人民志愿军八年来抗美援朝工作报告(一九五八年十月三十日).”

陈忠龙(主编), 『中国人民志愿军人物志』, 南京: 江苏人民出版社, 1997.

*Eight year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resistance to American aggression and aiding Korea.*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58.

### 국문 요약

본고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해서 고찰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25일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은 한국전쟁이 미·중 대결의 국제전으로 전화하게 만들었고, 전후 이들의 북한지역 잔류와 지원은 북한의 전후복구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도록 도와주었다.

지금까지의 중국인민지원군에 관한 연구는 전쟁 시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논문은 정전이후의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주목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 잔류하면서 직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했고, 한편으로 북한에 중국 기술자를 파견하고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건사업을 도와주었다. 만약 중국인민지원군의 협조와 경제적 원조가 없었다면 북한의 재건사업은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에 모두 철군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관해서 북한과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의 재건사업이 성공했으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는 중국 국내의 다양한 사건과 북한 스스로 자립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정전후 북한에 너무 많은 인력과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군사력을 북한에 잔류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북한도 자주적인 외교와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북한과 중국 양국은 더 이상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주둔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이러한 양국의 속셈이 표출되어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은 성사되었다.

● 투고일 : 2006. 10. 13.

● 심사완료일 : 2006. 11. 27.

● 주제어(keyword) : 중국인민지원군 (Chinese People's Volunteers), 한국전쟁 (Korean War), 북중관계 (DPRK-China Relations), 북한의 재건사업 (Rehabilitation of North Korea),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Withdrawal of CPV in 1958).